



글로벌 역량 강화, 목적지향형 교육으로 승부!

외국어와 직무역량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HRD 솔루션, (주)캐럿글로벌

미국과 캐나다, 필리핀, 중국에 법인을 둔 캐럿글로벌(www.carrotenglish.com)은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 있다. 노상 총 캐럿글로벌 대표는 “콘텐츠와 서비스에 더욱 열의를 쏟아 10년 후에는 세계 교육시장의 삼성전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며 당찬 포부를 밝힌다. 캐럿글로벌은 ‘외국어 교육의 이유는 결국 성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항상 되새김질하며 글로벌 역량 강화에 관한 솔루션을 끊임없이 개발 중이다. 덕분에 수많은 기업들의 G-HRD(Global HRD) 파트너로 손꼽히고 있다.

글+사진 김나을 기자



기본 과정의 역량 수준에 따라 직무특화 과정 선발 여부를 판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인재 선발/관리체계(GCG)'

노 대표는 “외국어 교육이 단지 어학교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못 박는다. 자칫 하면 ‘공부를 위한 공부’와 같은 전치 현상(轉置現象)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 비즈니스가 결합된 교육은 양꼬 없는 전빵인 셈이다. 노 대표는 “랭귀지는 비즈니스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외국어 교육 역시 그 목적인 글로벌 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HRD 토달솔루션' 제공
글로벌 역량이란 무엇일까. 노 대표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함께 이문화에 대한 이해, 열린 마음, 환경적응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직무 역량”이라고 축약한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부터 조직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기반한 직무역량을 함양하여, 기업 전체가 전략적으로 글

로벌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캐럿글로벌은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통해 글로벌 역량개발의 이상을 실현코자 한다. 많은 인사담당자들은 캐럿글로벌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에 하나같이 칭찬을 모으는데, 이는 12년 간 과학적으로 축적해온 데이터베이스와 ISD(Instruction System Design) 덕분이다. 노 대표는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고객의 니즈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잡아내, ISD에 의거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또한 연구소 산하 전문 평가센터를 통해 교육 시작 전에 평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성과에 근거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캐럿글로벌은 일반적인 교육기관을 넘어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한다. 오프라인 워크샵과 모바일 러닝 시스템, 전화 외국어, 비추얼 클래스(virtual class), 평가센터 등 다양하게 마련된 툴(tool)을 기반으로 솔루션 기반의 풀 프레임(full frame)을 제공하는 것. 특히 비추얼 클래스는 해외에 나가서도 본사의 교육이 유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유용한 툴로 평가 받는다.

'가상 교육 시스템' 통해 전세계 직원들을 하나로!

노 대표는 향후 교육 트렌드는 비추얼(virtual)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피력



영어와 직무역량, 두 마리 토끼를 잡다

한편, 캐럿글로벌에는 사내 ESL, 글로벌 집중과정, 해외주재원 과정, 글로벌 직무역량 강화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노대표는 ‘커스터마이징 솔루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저희는 항상 고객관점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업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조직, 우리 업(業)에 맞춤형된 교육일 것입니다. 이문화 교육에서의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 산업 전문용어 등을 제공하게 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에는 직원들의 실력에 맞춘 건설 영어를 디자인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기업이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던 캐럿글로벌은 ‘On the Job English’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는 결국 성과를 높이기 위함인데, 글로벌 수준의 직무역량이 함양되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Accounting and Finance, Human Resources와 같은 공통직무역량과 Automotive, Banking and Commerce, Construction과 같은 산업별역량과정은 실무 대처 능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노대표는 “협상, 프레젠테이션, 미팅 등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것이 단순 외국어 교육이 아닌 직무와 연관된 교육과정 설계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강화에 힘쓰는 노대표의 시선은 최근 중소기업으로 향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사람인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직원육성 의지와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캐럿글로벌이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는 노대표.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그의 뜨거운 열정에서 캐럿 글로벌이 세계적인 글로벌 역량 교육컨설팅 회사로 거듭나고 있음이 엿보인다. **HRD**

한다. 가상교육은 공간의 제약성을 극복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이 결합된 형태다. 국내에 있는 인력과 해외에 있는 인력들이 가상공간에서 함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HRD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교육전략을 수립·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추얼 클래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교육 각각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습 몰입면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비추얼 클래스는 실제 오프라인 수업과 동일하게 강사가 출결과 수업태도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아집니다. 세계 여러 곳에 떨어져있는 주재원들이나 지사 인력들이 한 공간 안에서 같이 교육을 받다보면, 교육 지속성 향상은 물론 동질감을 통한 향수 달래기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비추얼 클래스의 강사는 티칭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중 선별하여 반드시 캐럿글로벌만의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거쳐 채용한다. 노대표는 합격 기준이 까다로운 만큼 강사의 질이 높다고 자부하는데, 어렵게 뽑히고 훈련된 강사들은 수업에서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퀄리티 컨트롤(Q.C) 시스템을 통해 수업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철저한 관리 수준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며 학습자들의 실력향상과 만족을 꾀한다.